

2013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3.11.21(목) 15:00~16:30

1.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발전한 모습 긍정적인 평가

- 뉴스Y 출발할 때 보다 많이 발전한 모습이 보기 좋으며 향후에는 국외 매체와도 경쟁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차경애 위원)
- 현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정치에 관한 내용을 짚어 보는 것은 매우 좋으며, 좋은 해법이 나와서 경제가 나아지는 기회가 됐으면 함.
- 북한은 오늘 외에 맹찬형의 시사터치에서도 북한문제를 다뤘는데 청취자들에게 북한의 급변하는 상황을 전하는 유익한 내용이었음(차경애 위원)
- 경제관련 토론내용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표가 엇갈리고 있음. 이때 패널로 출연한 나성민 교수출신 새누리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서로 극과극인 성향으로 패널선정을 잘 맞춘듯했음. 패널을 선택하는 기획이 좋았음(임상혁 위원)
- 화면구성, 자막배치, 전체화면 색감, 앵커와 케스터, 기자복장과 발언태도, 습관 등 세세한 문제들 개선되가는 모습이 보임(이석구 위원)
- 장애인, 이주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함(이석구 위원)
- 보도채널의 뉴스프로그램은 데일리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을 차별화 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뉴스Y는 맹찬형의 시사터치등 상당히 좋아졌음. 프로그램의 카메라 워크와 화면 구성도 안정화 되고 있음(한박무 위원)
- 뉴스Y는 개국 2주년을 맞아 그동안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며 전체적으로 성숙해진 모습이 보임(한박무 위원)
- 지방시대를 보면 매우 다양한 지역별 내용을 전달해서 전국의 내용을 모두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매우 유익함. 시청률이 높아지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함(한박무 위원)
-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내용에서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내용은 각계전문가가 나와 자세한 설명을 해줘 시청자들 많은 도움이 됐음(김정연 위원)
- 뉴스는 자원과 시간의 싸움이므로 단시간에 과도에 오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뉴스Y는 크게 발전하고 있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뒤에 연합뉴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함(박영상 위원장)

▲ 심층취재·보도 필요해

- 시청자를 끌어 들이는 뉴스의 품질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함. 화제성 뉴스에 대한 심층 분석은 계속 되는 것이 좋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11일부터 1000일이 되는 2013년 12월 10일에 맞춰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00일' 심층 분석을 다뤄보면 좋을 것(홍승용 위원)
- 러시아 푸틴대통령 방문 관련 내용은 국내에 대단히 중요함. 푸틴의 동방정책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으로 다뤄보고 다각적인 분석일 필요했음(홍승용 위원)
- 철강, 조선, 자동차, 휴대폰, 가전, 식품, 의류, 부동산 등 산업별 주제로 나누어 심층 분석을 다뤄보면 좋을 것(임상혁 위원)
- 뉴스Y가 특화될 수 있는 분야의 하나가 바로 스포츠임, 연합뉴스의 베테랑 취재기자를 활용해 특종을 발굴하고 심층 분석 기사를 발굴해야 하고 아마추어 종목이나 학교, 생활체육 민속종목등도 보다 체계적으로 취재를 해야 함(최종준 위원)

▲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 제고

- 뉴스는 구성된 사실임, 즉 관점을 갖고 뉴스를 제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뉴스Y 2년간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에 절심함을 더해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음(박영상 위원장)
- 뉴스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추세를 반영해 홈페이지, 포털,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접속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김경모 위원)
-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합뉴스의 강력한 뉴스 창출기능을 활용해야 함. 뉴스의 시차에 따른 정확성 신속성은 뉴스로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악제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함(최종준 위원)
- 종편들의 지나친 시사위주의 편성으로 상대적으로 뉴스Y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에 아나운서, 앵커 등 간판급/스타급으로 기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함(최종준 위원)

▲ 화면구성 및 외래어 등 개선필요

- 아직도 오자가 가끔 나오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목이 글로벌인사이드 등 외래어가 아직 많아 우리말로 바꾸어줬으면 좋겠음(차경애 위원)
- 지방시대에서 카메라를 좁게 잡아서 채널23이 일부 가려져 채널2로 보일 때 있으므로 카메라로 화면 잡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막위에 네임바에 가자 이름등이 들어가는데 위치를 오른쪽에 넣고 출연자는 중앙에 놓으면 좋을 것 같음(한박무 위원)
- 앵커뒤 부조 화면이 어두워 보인 적이 있는데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음(한박무 위원)

- 디자인경영을 처음 시작한곳이 미국 PNG에서 원과관리와 품질관리만 해왔으나 불황이 닥치자 디자인경영으로 극복했음. 전자 자동차 화장품 등 성공사례를 많아 뉴스Y의 화면구성 즉 디자인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함(한박무 위원)
- 서울시장 서울후보감 내용에서 서울시로고가 아닌 다른 로고 같음 지방마다의 로고가 자료화면과 불일치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한박무 위원)
- 화면구성의 우측 상단 한글로 뉴스와이 표기한 것도 좋지만 로고의 색상이나 모양 세련되고 좋지만, 시청자에게는 로고 뉴스Y와 한글 뉴스와이가 집중성, 통일성 떨어지므로 로고위주로 이미지의 활용도를 높여야함(김정연 위원)
- 보도화면중 뒷 배경화면이 상황과 안 맞거나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김정연 위원)
- 현재 뉴스Y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화면구성임. 기본 바탕과 띠자막의 색인 주황색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자막은 사회, 정치, 스포츠 등. 분류가 안 돼 있어 이해도가 떨어짐(최종준 위원)

▲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견

- 주말 저녁은 한 주간 뉴스와 트위터의 내용도 정리해서 1~2 시간 정도 분량으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홍승용 위원)
- 주부들 아침 한가할 시간인 오전 11시쯤 생활밀착형 생활경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좋을 것(임상혁 위원)
- 세계뉴스를 다루는 월드클립과 월드리포트 That's Why는 글로벌Y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 싶을 만큼 두 프로그램간 차별성 못 느껴지므로 글로벌Y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한박무 위원)
- 뉴스Y최대 장점은 글로벌Y 지방시대 북한은오늘(정치, 경제, 군사에 치중) 3대 프로그램임 킬러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면 좋을 것(한박무 위원)
- 컨퍼런스포럼 등을 개최해 시청자들의 이야기가 방송자막이나 뉴스영상으로 나오게 되면 친밀감 느끼고 시청자를 끌어들이 수 있을 것(홍승용 위원)
- 의견 지도층을 흡수하기 위해 탐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 난상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좋을 것(김경모 위원)
- 뉴스의 주목도를 높이고 시청자의 식견을 높이기 위해 데스크급 전문 기자가 출연해 한 주간의 해당 뉴스 주제를 정리하고 핵심을 짚어 해설하는 코너를 개발하면 좋을 것(김경모 위원)
- 정치관련 보도 내용 중 방송토론은 주로 상대방 의견은 무시한 채 본인 의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형식임. 이견이나 쟁점을 줄여 나가 결론에 도달하는 토론이 되도록 기술적인 진행에 노력해줄 것(김정연 위원)

▲ 주요사건사고보도는 현장성이 중요해

- 아이파크 헬기 추락사고 관련 보도에서 뉴스Y는 톱뉴스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

음. 현장성 있는 뉴스의 품질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함(홍승용 위원)

- 필리핀 재난 관련 보도시 타사는 현장에서 시체 나르는 모습 등을 보여줘 섬뜩하긴 했지만 현장성이 강했던 반면 뉴스Y는 현장성 떨어져보여 아쉬움.
필리핀의 현지인을 통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취재를 했다면 좋았을 것(홍승용 위원)

▲ 기타 의견

- 청취자는 뉴스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입장. 청취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양방향소통을 위한 창구를 만들면 좋을 것(임상혁 위원)
- 뉴스1번지의 사생토론은 두 사람씩 편을 나눠 토론을 벌이는 내용인데 한자의 뜻이 이해가 안가(한박무 위원)
-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아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내용의 뉴스를 방송해 주류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람(이석구 위원)
-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미성년자, 범죄, 국가안보 등은 전문적인 보도 매뉴얼을 구비하고, 선거 자연재해 등 반복적 이벤트는 청서와 백서를 발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사내 미디어연구소 또는 뉴스아카이브를 구축하면 좋을 것(김경모 위원)